

# 우리나라 經營學教育의 方向

## —최근 美國 經營學의 研究動向과 관련하여—

金 東 基

(高麗大 經營大學長)

### I. 序

1954년 高大와 延大가 美國 워싱턴大學과 經營學關係 學術交流計劃을 체결한 지 벌써 2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경영학의 不毛地帶였던 당시의 韓國 經營學界는 美國 經營學을 우선 直輸入하여 國內에 그대로 소개하는 것이 最大 課題였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었다.

1955년 高大에서 韓國 최초의 經營學科를 設置한 이래 계속해서 高大가 韓國 최초의 經營大學院, 經營新聞社와 企業經營研究所를 각각 설립하여 歐美 經營學을 國內에 도입하는 데 先驅者的 役割을 담당해 왔음은 周知하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1980년대 中반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 經濟도 中進國段階를 거쳐 先進國型經濟에로 발돋움하고 있는 만큼 과거 30年間 우리나라 經營學界가 일관해서 推進해 온 歐美諸國의 先進 經營理論의 단순한 導入紹介라는 단계에서 進一步하여 이제 우리나라의 經營學界가 우리나라 企業風土 내지 韓國의인 文化風土에 알맞는 經營理論 내지 모델을 開發할 段階에 도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오히려 늦은 감마저 없지 않다.

따라서 筆者는 우리나라 經營學教育의 方向을

摸索하기에 앞서서 現代經營學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美國 經營學教育의 潮流를 살펴본 다음 최근 美國 經營學研究의 動向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 美國 經營學教育의 2大潮流와 傾向

美國에서 최초로 세워진 經營學의 高等教育機關은 펜실베니아大學校의 「워튼 스쿨」이다. 그 뒤 雨後竹筍格으로 퍼져 나간 經營學教育機關은 第2次 世界大戰이 끝난 1945年 이전에는 주로 學部中心의 經營大學(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이 主流을 이루다가, 1950년대 이후부터는 大學院中心의 經營大學院(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이 經營學教育의 새로운 主流을 이루어 나가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美國 企業이 주로 찾는 經營學專攻者는 學部出身이 아니라 經營大學院出身의 經營學碩士學位(MBA degree) 소지자이다. 美國內의 10大 經營大學院을 졸업한 經營學碩士의 初任給은 年俸이 대개 28,000~40,000 弗 線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給與水準은 美國 大學의 助教授 初任 俸給水準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늘날 美國 經營大學院을 중심으로 한 經營學教育은 하버드經營大學院처럼 100% 事例中心으로 교육하는 學校와 매사추세츠工科大学의 「슬론經營大學院」(Sloan School of Management)

처럼 數理的 接近方法을 重視하는 100% 理論中心의 敎育으로 「經營科學碩士」(Master of Science in Management) 학위를 수여하는 2大潮流로 大別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이 극단적인 2大潮流는 다 함께 호된 批判을 받게 되어 최근엔 兩者의 長點을 兩折衷式이 平衡한 脚光을 받고 있다. 이러한 折衷式 敎育을 代表하는 학교가 바로 「스텐포드大學校 經營大學院」인데 이 새로운 潮流를 좇아 가고 있는 학교는 뉴욕大學校, 시카고大學校, 컬럼비아大學校, 캘리포니아大學校 등의 經營大學院으로 알려져 있다. 타임誌 보도에 의하면 하버드經營大學院內에서도 100% 事例研究에 의한 敎育方法에 대한 反省과 批判이 일어나고 있는데, 최근의 뉴스위크誌 보도에 의하면 「스텐포드大學校 經營大學院」이 이 점에 있어선 「하버드大學校 經營大學院」을 한 발 앞섰다고 보도한 바 있다.

앞으로의 추세는 뉴스위크誌가 豫見한 대로 「스텐포드大學校 經營大學院」의 折衷式敎育이 아닌가 생각된다. 왜냐하면 하버드식은 實務는 알게 되어도 理論은 도르게 되는가 하면 MIT式은 반대로 理論은 알게 되어도 實務는 모르게 되는 弊端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러한 兩極端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한편 美國 經營學의 최근 研究動向을 살펴보기 전에 現代經營學의 生成過程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다.

### Ⅲ. 現代 經營學의 生成過程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經營學의 起源은 대체로 20세기초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生成過程은 각종 生産工場의 運營管理를 보다 合理的으로 해 나가기 위한 研究活動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물론 近代 經營學 形成에 貢獻한 諸理論의 起源은 中世紀의 카톨릭敎會組織이나 官房學派理論 또는 軍隊組織이나 孔子나 孫子の 가르침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으나, 본격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近代 經營學의 理論的 基礎를 마련하는 데 크게 공헌한 사람은 美國의 Fredrich W. Taylor 라고 할 수 있다. 테일러가 「미드빌

鐵鋼會社」의 機械工으로부터 職工長이 된 뒤 종래의 舊來式 工場管理方式으로서는 도저히 工場을 합리적으로 運營·管理할 수 없음을 깨닫고 時間研究, 動作研究를 통하여 公정한 1日 作業量(a fair day's work)을 科學的으로 설정하는 것이 絶對的으로 必要하다는 結論을 얻고 1903年엔 「工場管理」(Shop Management)라는 著書를 통해 「科學的 管理法」을 소개하기에 이르렀다.

그 뒤 프랑스의 앙리 فاي올(Henry Fayol)이 유명한 「工業 및 一般經營學」(Administration Industrielle et Generale)을 1916年에 出版하였고, 英國의 셸돈(Oliver Sheldon)은 1923年에 經營學의 理論的 構造를 파헤친 「經營哲學」(The Philosophy of Management)을 내놓았다.

테일러는 作業工程의 單純化, 標準化 및 專門化와 勞働量 測定을 통한 工場의 科學的 管理를 강조하였고 فاي올은 처음으로 企業의 經營組織을 販賣, 財務, 會計, 人事, 生産 등과 같은 機能으로 분류하여 職能別 組織을 할 필요성과 管理機能으로서 計劃, 組織, 指揮, 調整, 統制의 5개 機能이 있다고 설하였다. 한편 셸돈은 企業經營에 있어 方針과 理論的 目標設定의 原理와 重要性을 강조하는 한편 administration과 management의 機能的 區分을 주장하였다.

近代經營學史에 있어서 테일러, فاي올 및 셸돈은 초기의 3大 經營理論家로 評價받고 있다. 이 세 사람은 經營管理의 실체를 통하여 歸納的으로 經營理論을 抽出해낸 데 반하여 獨逸 經營學은 演繹的 方法에 의하여 經營理論을 設定시켰다.

슈마렌 바하, 닉크릿쉬, 슈미트 등으로 代表되는 獨逸經營學은 주로 會計學 系統의 학자들에 의하여 開發된 까닭으로 理論은 經濟學에 의존하고 內容은 財務會計의 價値計算에 倚重하는 抽象的인 理論에 빠진 듯한 印象이 아주 짙다. 그 結果 일반적으로 美國 經營學을 實用主義的 實踐의 經營學이라고 부르고 獨逸 經營學은 觀念主義的 理論 經營學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 Ⅳ. 美國 經營學의 最近 動向

現代 美國의 産業社會를 工業化以後社會(post-

industrial society)라고 부르고 있다. 이 말은 오늘날의 美國 社會가 資本의 核心的인 生産요소가 되고 있는 「重化學工業中心社會」에서 情報나 知識이 핵심적인 生産要素가 되고 있는 「情報化社會」에 移行하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환언하면 종래의 「勞動 및 資本集約的 産業」 중심에서 「研究開發集約的 産業」 중심으로 미국의 産業構造가 급속히 변화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美國 經營學도 이러한 産業構造改編에 발맞추어 새로운 管理理論 내지 技法이 급속하게 개발되고 있다.

그 대표적 이론이 研究開發理論(Research & Development Theory), 經營情報시스템(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産業工學(Industrial Engineering), 컴퓨터프로그래밍(Computer Programming), 시스템理論(Systems Approach) 등이다.

실용주의적인 美國 經營學은 美國 企業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는 데 필요한 ① line & staff 理論의 확립 ② 經營에 있어서 人間關係의 중요성과 行動科學的 接近方法의 중요성 ③ 意思決定에 있어서 OR의 모델 설정 ④ 確率論에 의한 信賴性理論 ⑤ PERT, CPM 技法 도입 ⑥ PPBS, Zero Base Budgeting, ZD, TQC 技法 도입 ⑦ 시스템理論에 입각한 統合化 저항 등 美國 經營學의 發展相은 실로 눈부신 바 있다.

특히 OR 과 같은 計量的 接近方法을 컴퓨터와 결합시켜 도입시킨 것은 특기할 만하다. OR 에 포함되는 다음 열두 가지 理論은 經營管理의 科學化에 있어서 그 비중이나 중요성이 나날이 증하고 있다.

- ① 在庫理論(Innentory Theory)
- ② 線型計劃理論(Linear Programming)
- ③ 게임理論(Game Theory)
- ④ 模擬經營(Simulation Management)
- ⑤ 待期行列理論(Quenning Theory)
- ⑥ 計劃評價技法(PERT)
- ⑦ 代替理論(Theory of Replacement)
- ⑧ 情報理論(Information Theory)
- ⑨ 拔萃理論(Sampling Theory)
- ⑩ 動態的 計劃(Dynamic Programming)

### ⑪ 順位配列理論(Sequencing Theory)

### ⑫ 搜索理論(Search Theory)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現代經營學은 企業이 능여 있는 環境條件의 變化와 그 변화에 따른 意思決定 與件의 不安定性, 다시 말해서 「不確實性下的 意思決定」(decision-making under uncertainty)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다 動態的인 經營管理理論과 技法의 개발이 主要課題가 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技法 내지 理論 이외에 증시되고 있는 技法이 「豫防經營理論」(Preventive Management Theory)이다. 이것은 종래의 結果重視 業務執行中心理論에서 計劃化中心(Planning-oriented) 및 過程中心(process-centered)理論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豫防經營이란 어떤 企業病이 발병한 뒤에 診斷, 處方, 治療라는 순서를 밟는 대신 合理的인 計劃과 계획의 합리적인 執行過程管理를 통하여 처음부터 企業病의 발생을 예방하자는 것이다.

마치 現代醫學의 研究焦點이 「治療醫學」에서 「豫防醫學」으로 방향 전환을 하고 있듯이 企業經營도 事後管理나 事後統制에 역점을 둔 지금까지의 경향에서 탈피하여 不實經營이나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豫防經營技法을 강조하는 것이 최근의 美國 經營學이 보여 주고 있는 새로운 潮流이다.

이의 대표적인 이론이 企業環境管理理論과 行動科學論이며 또 대표적인 技法이 PPBS, Zero Base Budgeting, ZD, TQC, PERT, CPM 등이다.

## V. 우리나라 經營學教育의 方向

한국에 歐美 經營學이 도입된 1950년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타난 우리나라 經營學教育의 特徵은, 첫째 歐美諸國의 經營理論과 經營技法의 단순한 도입과 소개에 그쳤고, 둘째 韓國文化, 韓國經濟나 韓國企業에 관련된 科目은 거의 100% 제외되었으며, 세계 經營哲學, 經營思想 등과 관련된 과목은 거의 排除되었을 뿐만 아니라, 비껴 經營學史, 經營思想史, 經營史 등 역사적 관

점에서 經營管理나 經營學을 다룬 과목을 가르치고 있지 않은 점들이다.

그 결과 經營大學 4년을 졸업하는 데 필요한 140 학점 取得者는 美國 經營大學에서 가르치는 技法만 익혀 가지고 大學을 졸업하고 만다. 앞으로 開放社會, 國際化社會가 될 미래의 韓國社會가 요구하는 미래의 훌륭한 經營者를 양성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經營學教育은 다음과 같은 方向에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韓國經濟와 韓國企業의 國際化추세에 발 맞추어 經營大學生들에게 보다 많은 國際經濟, 國際經營, 國際資源 및 國際金融關係 科目을 가르쳐야 한다. 國民總生產額 中 貿易이 74%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現貨情에 비추어 볼 때 國際經濟나 國際企業活動에 관련된 과목이 너무 적다.

둘째, 자본주의의 發展過程에서 露呈된 諸問題點과 그 解決方案을 모색하는 과목인 經營哲學, 經營思想, 企業倫理 등을 많이 가르쳐야 한다. 善惡의 判斷基準이 될 倫理道德을 가르치지 않고 科學的 管理技法만을 강조하는 現行 教科目은 확실히 보다 전진한 資本主義企業의 發展에 필요한 理想的, 思想的, 倫理的 基礎 提供에 미흡하거나 실패하고 있다.

지금까지 資本主義社會에 있어서 生活水準이라면 貨幣所得水準과 財貨所有水準 등 주로 물질적이고 양적인 것만 강조해 왔는데, 앞으로의 生活水準 概念은 지금의 개념보다 더 정신적이고 더 질적인 것이 될 것이다. 즉 첫째, 國民이 얼마나 많은 量의 商品과 서비스를 살 수 있는지가 아니라, 어떤 質의 商品과 서비스를 살 수 있는가 하는 이른바 良質의 生活財와 生活서비스 水準이 새로운 生活水準 概念이다. 둘째, 國民의 幸福感和 주요한 관련이 있는 맑은 空氣와 물, 범죄나 사고로부터의 방지 내지 해방, 醫療行爲上的 실수나 파산에서 오는 被害補償 등의 보장

등을 받을 수 있는 制度的 裝置가 마련된 生活水準이어야 하며 세계, 公共部門이든 民間部門이든 모든 國民들이 상품이나 서비스뿐만 아니라 모든 富와 良質의 生活水準이 공평하게 분배되고 있다는 느낌을 국민 대다수가 갖는 것이다. 이 세 가지의 새로운 生活水準을 실현시키기 위해 企業과 企業家は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야 한다.

세째, 美國 經營, 日本 經營처럼 한국적 企業 내지 文化風土에 알맞는 韓國 經營을 가르치기 위해 韓國文化, 韓國企業史, 韓國社會史 과목을 가르쳐야 한다. 가치관이 다른 歐美 經營學을 그대로 韓國企業에 접목시키는 데서 오는 무리와 비현실성 그리고 실패는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네째, 企業環境管理論을 많이 가르쳐야 한다. 韓國 企業의 成敗는 기업 내부적 요인보다 기업의부의 환경요인에 더 크게 달려 있는 개 韓國의 現貨이기 때문에, 이 環境管理와 관계가 깊은 對環境理論이나 經營政策, 勞務關係論 등을 보다 많이 가르쳐야 할 것이다.

다섯째, 組織과 組織構成員間의 關係 및 구성된 상호간의 관계를 다루는 人間關係論, 產業心理學, 集團力學 등의 과목을 많이 가르쳐야 한다.

이제 우리나라 經營學教育도 少年期를 지나 靑年期에 들어선 만큼 지나칠 정도로 美國식 일면도인 經營學教育이나 思想과 理念이 배제된 技法 일색의 經營學教育은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經營學界가 經營學教育의 「經營管理」를 제대로 해 나가야 우리나라 기업도 「經營管理」를 제대로 해 나갈 수 있는 만큼, 우리나라 經營學界는 겸허하게 지금까지의 經營學教育의 未備點이나 잘못을 반성하고 내일의 韓國 產業社會가 요구하는 經營學教育으로 一大 方向轉換을 해야 할 것이다. \*